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업윤리에 대한 태도*

정충영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cvjung@kvungpook.ac.kr.)

이 논문은 기업윤리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Neumann과 Reichel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닌 기업윤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윤리적 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비교하였고 기업의 노무직, 사무직 및 기타 집단과 비교를 행하였으며 경영계 학생과 비경영계 학생을 비교하였다.

설문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한국학생들은 미국, 호주 및 이스라엘 학생과 다른 윤리적 태도를 갖고 있었고 다른 직종에 속한 집단과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 2) 경영계 학생들은 비경영계 대학생들과 윤리적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 3) 기업윤리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태도는 사무직집단보다는 노무직 집단에 가까웠다.

I. 서 론

이 연구는 기업윤리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지닌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조사를 행한 것이다. 머지 않아 기업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학생들이 지닌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는 앞으로의 기업방향과 그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국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단히 일천한 기업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짧은 기간에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정부의 성장 위주 정책에 따라 성장에만 급급하였을 뿐 노동자의 권익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등한시하였고 정경유

착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기업의 비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 경제규모가 세계 12위를 점하게 되었고 OECD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경제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에 비난을 받지 않을 깨끗한 경제나 윤리적 경영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경영자인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에 관한 연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윤리적 기업경영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의 외국 대학생들의 것과 비교하고 대학생 집단을 다른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윤리적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기업윤리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윤리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점차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윤리에 관한 기존의 문제는 윤리적 태도 혹은 의도가 윤리적 행동을 일으키는가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주목을 끌며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Hunt와 Vittel(1986)은 개인이 그가 직면한 문제에 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Wines와 Napler(1992)는 윤리적 의식과 윤리적 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윤리적 행동을 결정하는 변수는 인지적 의식과 비인지적 의식인 태도이며 도덕적 가치는 환경요소인 문화, 가족, 종교, 기업문화 등과 자신의 교육, 생활경험을 통해 여과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Steers(1987)는 태도의 형성요소는 믿음(belief)과 같은 인지적(cognition) 요소와 정서적(affective) 요소 및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s)로 구성됨을 논하였다.

Ajzen과 Fishbein(1973)은 특정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예측될 수 있고 이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준거집단의 규범적 기대의 함수이며 기타 다른 변수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안동규 등(1995)은 기업윤리행동은 기업의 윤리 의식과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윤리적 태도가 윤리적 행동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

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따라서 미래의 경영자인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의 연구는 앞으로의 기업윤리의 예측이나 윤리교육을 위해 필수적임을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된다. Lysonski와 Gaidis(1991)는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의 경영계 학생들을 상대로 제시한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 후 국적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Borkowski와 Ugras(1992)는 연령, 성별 및 경험에 따른 윤리적 태도를 분석한 후 학부학생들은 MBA학생보다 정의지향적이며 남성은 여성보다 더 실용주의적이며 우유부단한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Preble과 Reiche(1988)는 미국학생 및 이스라엘 학생들의 기업윤리에 관련된 논쟁점(issues)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고 Small(1992)은 Western Australian 경영계 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조사한 후 경영계 대학생들은 잠재적 관리자이며 미래의 경영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조사는 관리자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예측하는 예측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Allmon 등(1997)은 호주, 대만 및 미국의 경영계 학생들의 기업윤리의 인식을 비교하고 이들간에 윤리인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식방법에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윤리의 인식에 보편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았다. Grunbaum은 국제기업의 윤리적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남부지방 출신의 핀란드학생과 미국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비교하여 두 그룹간의 윤리적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들의 지위에 따른 힘과 연관되어 있고 문화적 상대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Tse와 Au(1997)는 경영계 학생과 비경영

계 학생간에는 윤리의 표준에 차이가 없다는 것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윤리적이며 상급학생은 하급 학생보다 윤리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별, 학년, 종교, 가계수입 등의 변수들은 윤리적 입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mith와 Oakley(1997)는 학부 및 대학원 경영계 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비교하여 사회 및 인간관계에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법에 근거한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Arlow(1991)는 학부의 전공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경영계 학생은 비경영계 학생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윤리적이며 사회적 책임감이 높다고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윤리적 태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의 기업윤리를 예측하거나 현행의 기업윤리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다른 나라 대학생들의 것과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지닌 기업윤리적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III. 우리나라 대학생의 윤리적 태도 분석

3.1 설문조사 내용

3.1.1 설문 및 그 응답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Neumann & Reichel(1987)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기로 한다. 한 집단의 윤리적 태도는 다른 집단과 비교될 때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비교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집단과 비교하기로 한다.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의 윤리적 태도의 비교는 Prebles & Reichel(1988) 및 Small(1992)이 행한 이스라엘 및 미국 학생들 및 호주 대학생들의 자료를 이용하기로 하며 우리나라의 다른 집단 즉 노무직, 사무직과 기타 집단의 자료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것을 이용하기로 한다.

Neumann & Reichel(1987)이 개발한 설문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30개의 논쟁점(issue)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 또는 태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지를 우리 정서에 맞게 고쳐 사용하기로 한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대학생, 회사원 및 기타집단으로 분류하고 대학생 집단은 다시 경영계 및 비경영계 대학생으로 구분되고 회사원은 사무직, 노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행하기로 한다. 응답자 중 기타 집단은 공무원이나 교직 종사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설문의 응답자들은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며 대구 경북지역의 10여 개 대학생이 포함되었고 무작위로 선정된 이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혹은 우편으로 배부하

(표-1) 설문응답자의 구성

설문응답자	응답자 수	구성비(%)
대학생	233명	46.1%
경상계열	(119명)	(23.6)
비경상계열	(114명)	(22.5)
회사원	225명	44.6%
사무직	(56명)	(11.1)
근로직	(169명)	(33.5)
기타	47명	9.3%
합 계	505명	100.0%

여 응답을 받았다.

본 설문의 응답자의 구성은 [표-1]과 같다.

설문의 조사기간은 1995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45일간이며 각 문항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찬성의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배부된 1,190매의 설문지 중 회수된 것은 514매로서 42.5%의 회수율을 보였다¹⁾

회수된 설문지 중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9매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 응용된 응답지는 505매이다. 본 분석에서 인용된 다른 나라 학생들의 응답자 수는 미국 120

명, 이스라엘 150명, 호주 112명이다.

3.1.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기업윤리에 관한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윤리적 논쟁점들이며 이것들은 그 성질상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윤리의 논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의 태도가 다른 집단의 것과 동질성을 갖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논쟁점들을 다음과 같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²⁾

- (1) 「윤리관」에 관한 문항6개
- (2) 「윤리의 적용」에 관한 항목..... 5개
- (3) 「사업관」에 관한 문항.....6개
- (4) 「사업가관」에 관한 문항.....7개
- (5) 「윤리의 실천」에 관한 문항.....6개

앞의 구분에 따라 재정리한 설문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기업윤리의 논쟁점에 관한 문항

(1) 「윤리관」에 관한 항목

문 항	문 항 의 내 용
Q-04	법을 따르는 것이 도덕을 지키는 것이다
Q-09	기업윤리는 PR용이다
Q-10	사업계가 변하듯 윤리관도 변한다
Q-23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뿐 수단은 문제되지 않는다
Q-26	도덕이란 궁극적으로는 이기주의일 따름이다
Q-28	“자기희생”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1) 회수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일부의 조사는 응답자를 한자리에서 집단으로 조사하고 응답 후 곧 회수하였기 때문이다.

2) 논쟁점들의 구분은 본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윤리의 적용」에 관한 항목

문항	문항의 내용
Q-05	윤리란 실제행동과 기대행동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Q-07	사업과 도덕가치는 별개의 것이다
Q-18	주주들이 수익에만 큰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Q-19	“모든 노력은 결국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Q-30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해서는 안된다

(3) 「사업관」에 관한 문항

문항	문항의 내용
Q-01	사업이란 돈을 버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도덕문제를 무시해야 한다
Q-11	경쟁의 정도는 수익성과 무관하다
Q-12	경쟁의 제한은 사회에 해를 끼친다
Q-17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Q-20	사업의 기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Q-24	모든 사업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4) 「기업가관」에 관한 문항

문항	문항의 내용
Q-02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덕문제를 무시해야 한다
Q-03	모든 사업가는 도덕원리를 따르고 있다
Q-06	의사결정에서는 윤리적인 면은 제외되고 경제적인 면만 고려한다
Q-08	사업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Q-22	사업가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Q-25	훌륭한 사업가란 성공한 사업가를 말한다
Q-29	일에 대한 헌신적 태도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5) 「윤리관의 실천」에 관한 문항

문항	문항의 내용
Q-13	자동차 보험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Q-14	물품구입시 구입가격을 속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Q-15	사무실 용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나쁜일이 아니다
Q-16	병으로 결근하는 날을 휴가일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Q-21	세일기간 중 가격할인율을 속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Q-27	사랑이나 소유물을 갖는 것보다는 진실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

한편, 인구통계에 관한 문항들은 [표-3]과 같다.

[표-3] 인구통계적 변수에 관한 문항

문항	문항의 내용
Q-31	나이 (1) 20세-25세 (2) 26세-30세 (3) 31세-39세 (4) 40세 이상
Q-32	성별 (1) 남 (2) 여
Q-33	신분 (1)학생-경상계열 (2)학생-비경상계열 (3)회사-근로자 (4)회사-비근로자 (5)회사 이외의 직장 (6)상업 (7)기타
Q-34	학력 (1)중학교 (2)고등학교 (3)전문대학교 (4)대학교 (5)대학원 (6)기타
Q-35	종교 (1)불교 (2)기독교 (3)천주교 (4)유교 (5)기타종교 () (6)종교 없음

3.2 대학생들의 기업윤리에 대한 태도분석

주 대학생들의 자료는 Small의 것을 인용하였다.

3.2.1 다른나라 대학생들과의 비교

(1) 「윤리관」의 비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비교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는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미국 대학생들의 자료는 Preble과 Reichel의 것을, 호

주 대학생들의 자료는 Small의 것을 인용하였다. 윤리관의 6개 문항에 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이스라엘, 호주의 경영계 대학생들의 응답은 [표-4]와 같이 요약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과는 달리 “기업윤리는 PR용”이란 Q-09와 “도덕이란 궁극적으로는 이기주의”란 Q-26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자기 희생은 비도덕적”이

[표-4] 「윤리관」 문항의 평균치

문항	한국	미국	이스라엘	호주
Q-04	1.99 (0.99)	1.9 (0.641)	2.7 (1.164)	2.22 (0.877)
Q-09	3.45 (1.28)	1.8 (0.570)	2.8 (1.254)	1.86 (0.777)
Q-10	2.39 (1.24)	1.9 (0.971)	3.3 (1.354)	2.001(1.086)
Q-23	1.92 (1.14)	3.6 (0.977)	2.7 (1.382)	4.00 (1.004)
Q-26	4.17 (1.00)	3.4 (0.911)	3.3 (1.264)	3.196(0.976)
Q-28	1.87 (0.90)	2.1 (0.839)	2.5 (1.185)	2.223(0.917)

<범례> () 안의 수자는 표준편차

[표-5] 「윤리관」에 대한 평균치 차이검정

	한-미	한-이	한-호	미-이	미-호	이-호
Q-04	0.090	-0.710**	-0.230	-0.800**	-0.320**	0.480**
Q-09	1.650**	0.650**	1.590**	-1.000**	-0.060	0.940**
Q-10	0.490**	-0.910**	0.389*	-1.400**	-0.101	1.299**
Q-23	-1.680**	-0.780**	-2.080**	0.900*	-0.400**	-1.300**
Q-26	-0.770**	-0.870**	0.974**	0.100	0.204	0.104
Q-28	-0.230*	-0.630**	-0.353**	-0.400**	-0.123	0.277*
차이있는 문항 수	5개	6개	5개	5개	2개	4개

<범례> **은 1%의 유의수준, *은 5%의 유의수준

란 Q-28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한, 미, 이, 호의 4개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치 차이 검정의 결과는 [표-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학생들은 6문항 중 5, 6개 문항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차이를 보여 주고 있어 윤리관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호주 학생들은 2문항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한국과 6개의 전 문항에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미국 및 호주와도 각각 5개, 4개의 차이를 보여 다른 나라 학생들과 상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윤리의 적용」의 비교

[표-6]은 「윤리의 적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을 비교한 것이며 [표-7]은 이들 각 대학생들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행한 결과이다. [표-6]에서 Q-19("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와 Q-30("소득이 소비의 기준")에 대해 한국학생들은 다른 나라학생들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Q-18("주주가 수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는 나라간에 아무런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사업과 도덕가치는 별개의 것"이란 Q-07의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학생들은 미, 호 학생들과 다르게 응답하였으나

[표-6] 「윤리의 적용」 문항의 평균치

문항	한국	미국	이스라엘	호주
Q-05	3.57 (1.00)	3.0 (0.741)	3.2 (1.109)	3.15 (0.774)
Q-07	2.30 (1.17)	1.4 (0.531)	2.4 (1.300)	1.59 (0.731)
Q-18	4.23 (1.09)	4.0 (0.789)	4.0 (1.170)	4.062 (0.971)
Q-19	3.41 (1.24)	3.0 (0.935)	3.0 (1.288)	3.16 (1.119)
Q-30	3.82 (1.10)	2.7 (0.935)	3.2 (1.473)	2.991(1.160)

<범례>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표-7] 「윤리의 적용」에 대한 평균치 차이검정

	한-미	한-이	한-호	미-이	미-호	이-호
Q-05	0.570**	0.370**	0.420**	-0.200	-0.150	0.050
Q-07	0.900**	-0.100	0.710**	-1.000**	-0.190*	0.810**
Q-18	0.230	0.230	0.168	0.000	-0.062	-0.062
Q-19	0.410**	0.410**	0.250	0.000	-0.160	-0.160
Q-30	1.120**	0.620**	0.829**	-0.500**	-0.291*	0.209
유의한 차 이의 개수	4개	3개	3개	2개	2개	1개

(범례) **은 1%의 유의수준, *은 5%의 유의수준

이스라엘 학생들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7]은 한국학생들은 5문항 중 미국과 4개, 이스라엘 및 호주와 3개의 문항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 대학생은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윤리의 적용」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된다. 특히할만한 점은 호주의 대학생들은 「윤리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의 대학생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 「사업관」의 비교

「사업관」에 대해 각 나라의 대학생들은 [표-8]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Q-24의 “모든 사업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에 대하여 한국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Q-11(“경쟁의 정도는 수익과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하여 경쟁과 수익을 결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Q-01의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며 도덕가치를 무시해야 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호주보다는 긍정적이었으나 이스라엘을 따르지는 못하였다.

각 나라 간의 차이에 대한 t-검정 검정결과 [표-9]와 같이 요약된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6개의 문항 중 미국과는 3개 문항, 이스라엘과는 2개 문항, 호주와는 4개 문항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사업관」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스라엘에 가까운 반응

[표-8] 「사업관」 문항의 평균치

문항	한국	미국	이스라엘	호주
Q-01	2.48 (1.29)	1.9 (0.860)	2.8 (1.289)	2.393 (1.318)
Q-11	2.08 (1.03)	2.3 (1.047)	3.4 (1.332)	2.509 (1.150)
Q-12	3.40 (1.11)	3.2 (1.121)	3.6 (1.309)	3.18 (1.114)
Q-17	2.80 (1.27)	2.9 (1.060)	2.9 (1.492)	2.52 (1.301)
Q-20	3.23 (1.22)	2.0 (0.951)	3.4 (1.338)	2.73 (1.322)
Q-24	4.26 (0.90)	3.3 (0.980)	3.6 (1.163)	3.441(1.165)

(범례) () 안의 수자는 표준편차

[표-9] 「사업관」에 대한 평균치 차이검정

	한-미	한-이	한-호	미-이	미-호	이-호
Q-01	0.580**	-0.320	0.087*	-0.900**	-0.493**	0.407*
Q-11	-0.220	-1.320**	-0.429**	-1.100**	-0.209	0.891**
Q-12	0.200	-0.200	0.220	-0.400**	0.020	0.420**
Q-17	-0.100	-0.100	0.280	0.000	0.380*	0.380*
Q-20	1.230**	-0.170	0.500**	-1.400**	-0.730**	0.670**
Q-24	0.960**	0.660**	0.819**	-0.300*	-0.141	0.159
유의한 차 이의 수	3개	2개	4개	4개	3개	5개

〈범례〉 **은 1%의 유의수준, *은 5%의 유의수준

을 보여주었으나 호주와는 크게 다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스라엘과 호주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4) 「사업가관」의 비교

「사업가관」에 대한 각국 대학생들의 반응은 [표-10]과 같다. 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Q-03(“사업가는 도덕적 원리를 따른다”)에 대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대학생들은 Q-02(“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덕문제를 무시해야 하다”)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

를 주고 있다. “일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Q-29에 대하여는 한국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과 다르게 가장 높게 지지 하였으나 이스라엘 학생들은 “의사결정에서 경제적인 면만 고려한다”는 Q-06에 대해 다른 나라학생들과 다르게 높게 반응하였다.

각 나라 간에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간에는 7개 설문 중 5개 설문에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과는 6개, 호주는 4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10] 「사업가관」 문항의 평균치

문항	한국	미국	이스라엘	호주
Q-02	3.31 (1.07)	1.6 (0.692)	1.8 (1.148)	1.393 (0.575)
Q-03	2.22 (1.09)	2.9 (1.414)	2.5 (1.163)	2.86 (1.210)
Q-06	2.44 (1.23)	2.4 (0.933)	3.6 (1.184)	2.70 (1.110)
Q-08	3.08 (1.27)	2.5 (0.848)	2.9 (0.995)	2.53 (0.829)
Q-22	2.94 (1.30)	2.4 (0.974)	2.5 (1.241)	2.741(1.121)
Q-25	2.71 (1.26)	3.0 (1.068)	3.5 (1.262)	2.98 (1.139)
Q-29	4.09 (1.03)	3.3 (1.106)	3.6 (1.111)	3.357(1.140)

〈범례〉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표-11] 「사업가관」에 대한 평균치 차이검정

	한-미	한-이	한-호	미-이	미-호	이-호
Q-02	1.710**	1.510**	1.917**	-0.200	0.207*	0.407**
Q-03	-0.680**	-0.280*	-0.640**	0.400*	0.040	-0.360*
Q-06	0.040	-1.160**	-0.260	-1.200**	-0.300*	0.900**
Q-08	0.580**	0.180	0.550**	-0.400**	-0.030	0.370**
Q-22	0.540**	0.440**	0.199	-0.100	-0.341*	-0.241
Q-25	-0.290	-0.790**	-0.270	-0.500**	0.020	0.520**
Q-29	0.790**	0.490**	0.733**	-0.300*	-0.057	0.243
	5개	6개	4개	5개	3개	5개

〈범례〉 **은 1%의 유의수준. *은 5%의 유의수준

미국과 호주간에는 3개 설문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비교는 나라간에 5문항에 이르는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사업관이 나라마다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5) 「윤리의 실천」의 비교

이제 각국의 대학생들에 대한 「윤리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응답의 결과는 [표-12]와 같이 요약되었다.

Q-06("병으로 인한 결근을 휴가기간에서 제외시

켜야 한다")에 대하여는 모두 낮게 대답하였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Q-13 ("과다한 보험 청구는 나쁜 일이 아니다")에 대한 응답은 다른 설문에 비해 공통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으나 한국학생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학생들보다 높게 응답하였고 "세일가격 속이기는 잘못이 아니라"는 Q-21에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Q-27의 "진실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각국의 대학생들의 응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12] 「윤리의 실천」 문항의 평균치

문항	한국	미국	이스라엘	호주
Q-13	3.38 (1.28)	3.0 (1.176)	2.9 (1.354)	3.223 (1.220)
Q-14	1.55 (0.93)	1.5 (0.719)	1.6 (1.147)	1.54 (0.793)
Q-15	1.82 (1.02)	2.2 (0.912)	1.5 (1.037)	2.45 (1.080)
Q-16	2.30 (1.24)	2.3 (0.877)	2.5 (1.549)	2.14 (0.976)
Q-21	1.27 (0.62)	2.0 (0.951)	1.8 (1.239)	2.0 (0.959)
Q-27	1.69 (0.92)	2.7 (1.089)	2.5 (1.339)	2.712(1.004)
총 점	15.39	13.70	12.80	14.07

〈범례〉 () 안의 수자는 표준편차

[표-13] 「윤리의 실천」에 대한 평균치 차이검정

	한-미	한-이	한-호	미-이	미-호	이-호
Q-13	0.380*	0.480**	0.157	0.100	-0.223	-0.323*
Q-14	0.050	-0.050	0.010	-0.100	-0.040	0.060
Q-15	-0.380**	0.320*	-0.630**	0.700**	-0.250	-0.950**
Q-16	0.000	-0.200	0.160	-0.200	0.160	0.360*
Q-21	-0.730**	-0.530**	-0.730**	0.200	0.000	-0.200*
Q-27	-1.010**	0.810**	-1.022**	0.200	-0.012	-0.212
	4개	4개	3개	1개	0개	4개

(범례) **은 1%의 유의수준, *은 5%의 유의수준

[표-1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호주와는 「윤리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반응하였으나 호주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30가지의 기업윤리 논쟁점 중 한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수는 미국 21, 이스라엘 21, 호주 19로서 이는 각각 70%, 70% 및 63.3%에 해당하여 한국대학생들은 비교된 다른 나라 대학생과 윤리적 태도에

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33.3%인 10개의 문항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이스라엘은 미국(17개, 56.7%) 및 호주(19개, 63.3%)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한국(21개, 70.0%)과도 큰 차이를 지닌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표-14]와 같다.

3.3.2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 집단간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집단과 일반인 집단(학생 아닌 집단) 간에 기업윤리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표-14] 각국 간 차이를 보인 문항의 수

()은 백분률

조사 내용	한-미	한-이	한-호	미-이	미-호	이-호
윤리의 이해	5	6	5	5	2	4
윤리의 적용	4	3	3	2	2	1
사업에 대한 시각	3	2	4	4	3	5
사업가에 대한 시각	5	6	4	5	3	5
윤리의 실천	4	4	3	1	0	4
전 체	21 (70.0)	21 (70.0)	19 (63.3)	17 (56.7)	10 (33.3)	19 (63.3)

있는 가를 밝히기 위하여 t-검정을 행한다. 30개의 설문 문항을 앞에서와 같이 5개의 범주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1) 「윤리관」에 대한 분석

「윤리관」에 대한 학생집단과 일반인집단의 응답의 결과와 두 집단간 t-검정의 결과는 [표-15]와 같이 요약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의 문항 중 4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생집단은 이러한 차이에서 일반인 집단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짐이 특징이다. Q-14(“법을 따르는 것이 도덕”)에 대해 일반인은 학생들 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학생들은 Q-26(“수단은 문제가 안 된다”)에 대해 일반인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윤리의 적용」에 대한 분석

「윤리의 적용」에 관한 5문항의 설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1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2문항에서만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3문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일반인은 “사업과 도덕은 별개”라는 Q-18에 학생들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3) 「사업관」에 대한 분석

[표-17]에서와 같이 「사업관」에 관한 6개 문항의 설문 중 2문항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4문항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업관이란 측면에서는 학생집단이나 일반인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Q-11(“경쟁은 수익과 무관하다”)에 대해 낮게, Q-24(“사업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에 대해 높게 반응하였다.

[표-15] 「윤리관」에 대한 t-검정

	학생	일반인	차이	t값(p-val)
Q-04	2.0707	2.5677	-.4970	23.914 (.000)**
Q-09	3.3675	3.2068	.1607	0.214 (.644)
Q-10	2.3993	2.5075	-.1082	0.642 (.423)
Q-23	1.9435	1.9435	-.3648	14.165 (.000)**
Q-26	1.8445	2.0677	-.2231	4.481 (.035)*
Q-28	2.0106	2.2218	-.2112	9.999 (.002)**

[표-16] 「윤리의 적용」에 대한 t-검정

	학생	일반인	평균차이	t값 (p-val)
Q-05	3.3392	3.1917	.1475	0.7573 (.006)**
Q-07	2.2297	2.4624	-.2327	5.501 (.019)*
Q-18	4.1237	4.1237	.1725	1.030 (.311)
Q-19	3.3569	3.4774	-.1206	1.674 (.196)
Q-30	3.6996	3.8158	-.1161	0.034 (.853)

[표-17] 사업의 관점에 대한 학생집단과 일반집단 간의 차이 검정

	학생	일반인	평균차이	t값 (p-val)
Q-01	2.7456	2.9323	-.1867	1.475 (.225)
Q-11	2.4240	2.5789	-.1549	13.108 (.000)**
Q-12	3.3569	3.2368	.1200	1.270 (.260)
Q-17	2.9187	3.2594	-.3407	2.540 (.112)
Q-20	3.2191	3.3459	-.1268	.448 (.504)
Q-24	4.2580	4.0940	.1640	6.132 (.014)*

(4) 「사업가관」에 대한 분석

사업가관에 대한 태도가 대학생 집단이나 일반인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의 문항 중 단 하나의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문항에서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Q-25("훌륭한 사업가란 성공한 사

업가")에 대해 일반인이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5) 「윤리의 실천」에 대한 분석

「윤리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6개의 문항 모두에서 대학생집단은 일반인집단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6문항 중 3문항으로서 윤리의 실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표-18] 사업가의 관점에 대한 t-검정

	대학생	일반인	평균차이	t값 (p-val)
Q-02	3.2721	3.0263	.2458	1.580 (.209)
Q-03	2.2014	2.4586	-.2572	3.508 (.062)
Q-06	2.4452	2.5226	-.0773	.000 (.996)
Q-08	3.1025	3.1729	-.0705	2.880 (.090)
Q-22	2.9364	3.0602		1.420 (.234)
Q-25	2.7032	2.8985	-.1953	6.887 (.009)**
Q-29	3.8481	3.6579	.1902	2.381 (.123)

[표-19] 「윤리의 실천」에 대한 t-검정

	대학생	일반인	평균차이	t값 (p-val)
Q-13	3.2615	3.3083	-.0468	.667 (.414)
Q-14	1.5724	1.7068	-.1343	3.249 (.072)
Q-15	1.8975	1.9624	-.0649	7.010 (.008)**
Q-16	2.3710	2.6241	-.2530	16.358 (.000)**
Q-21	1.3498	1.6617	-.3118	43.461 (.000)**
Q-27	4.2403	4.0489	.1914	2.321 (.128)

[표-20] 학생집단과 일반인 집단간의 반응차이의 요약

비교 내용	문항 수	차이문항수	차이비율
윤리의 이해	6	4	66.7%
윤리의 적용	5	2	40.0%
사업관	6	2	33.3%
사업가관	7	1	14.3%
윤리의 실천	6	3	50.0%
전체	30	12	40.0%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 [표-20]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윤리관」에 있어 일반인들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66.7%) 「사업가관」은 차이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3%).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 집단은 일반인 집단과 비교할 때 30문항 중 12개의 문항에서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고 있음으로 (40%) 양 집단간에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3 대학생, 노무직, 사무직 및 기타 집단의 비교

앞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 집단간에 기업윤

리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으나 본절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학생, 노무직, 사무직 및 기타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의 동질성에 관한 Levine-검정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을 행하기로 한다.

(1) 「윤리관」의 비교

대학생(A), 노무직(B), 사무직(C) 및 기타(D)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윤리관」에 관한 6개의 문항에 대한 Levine-검정의 결과는 [표-2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Q-04의 문항에서는 F값이 10.59이고 p값이 .000이므로 네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와 D) (D와 B) (B와 C)는 각각 동질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Q-09, Q-10 및 Q-28은 p값이 유의수

[표-21] 윤리관에 대한 Levine-검정

문항	동질집단	F값(p-val)
Q-04	(A D) (D B) (B C)	10.5909 (.0000)**
Q-09	(B D C A)	.9189 (.4314)
Q-10	(D A C B)	1.4709 (.2215)
Q-23	(D A) (B C)	7.6234 (.0001)**
Q-26	(D A) (A B C)	3.5036 (.0153)*
Q-28	(A D B C)	2.1308 (.0953)

[표-22] 동질 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수 (백분률)

	대학생(A)	노무직(B)	사무직(C)
노무직(B)	2(33.3)	-	-
사무직(C)	2(33.3)	0(0.0)	-
기 타(D)	0(0.0)	2(33.3)	3(50.0)

준 5%보다 크므로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Q-23과 Q-26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22]는 「윤리관」에 관한 6개의 문항 중 두 집단이 동질적인 그룹에 속한 문항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예컨대, 대학생 집단(A)은 노무직 집단(B), 사무직 집단(C) 및 기타 집단(D)와 비교할 때 각각 6문항 중 2개 문항, 2개 문항 및 0개 문항에서 반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무직은 사무직 집단(C) 및 기타 집단(D)과 각각 0개, 2개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사무직 집단(C)은 기타 집단(D)과 3개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윤리관」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생 집단은 기타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사무직과 노무직 집단간에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학생 집단은 노무 및 사무직 집단과 33.3%, 사무직과 기타집단간에는 50.0%의 차이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윤리의 적용」의 비교

「윤리의 적용」이란 측면에 관한 Levine-검정 결과는 [표-2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Q-18과 Q-19에서는 집단간에는 동질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다른 문항에서는 모두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느냐 아니냐가 중대한 관심사이므로 [표-23]을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면 [표-24]와 같다.

[표-23] 「윤리의 적용」에 대한 Levine-검정

	동질집단	F값(p-val)
Q-05	(D C B) (C B A)	1.7425 (.1572)
Q-07	(D A C) (A C B)	3.7013 (.0117)*
Q-18	(D B C A)	1.4637 (.2235)
Q-19	(D A B C)	1.1553 (.3262)
Q-30	(A C B) (D)	2.4974 (.0589)

[표-24] 동질 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수

	대학생(A)	노무직(B)	사무직(C)
노무직(B)	0(0.00%)	-	-
사무직(C)	0(0.00%)	0(0.00%)	-
기 타(D)	2	2	1

이 표는 대학생 집단이 노무직이나 사무직과 비교하여 동질적인 집단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무직 또한 노무직과 동일한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윤리의 적용」에 대해 학생, 사무직, 노무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다만 이들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타집단은 이들 집단과 약간의 다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3) 사업관의 비교

「사업관」에 관한 6개의 문항 각각에 대한 Levine-검정의 결과는 [표-25]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Q-20 이외의 문항들

〔표-25〕 「사업관」에 대한 Levine-검정

문항	동질집단	F값(p-val)
Q-01	(D A B) (C)	4.3476 (.0049)**
Q-11	(C A B) (A B D)	2.3408 (.0724)
Q-12	(D B A) (A C)	3.0191 (.0294)**
Q-17	(A B C) (B C D)	3.4281 (.0170)*
Q-20	(D A B C)	1.1433 (.3310)
Q-24	(D B A) (B A C)	2.7221 (.0437)*

〔표-26〕 동질 집단에 속하지 않는 횟수

	대학생(A)	노무직(B)	C(사무직)
노무직(B)	0	-	-
사무직(C)	1	2	-
기 타(D)	1	0	4

은 모두 동질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집단간에는 사업을 보는 태도가 집단간에 동질적인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다고 보기 힘든 경우도 있는 바 각 문항에서 이들이 동질집단으로 구분되지 않는 횟수를 정리하면 [표-26]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관」에서 대학생들은 노무직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사무직이나 기타집단과 약간의 차이(6문 중 1문)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사무직과 노무직은 이보다 더 큰 차이(6문 중 2문)를 보여주고 있다.

(4) 사업가관의 비교

「사업가관」에 관한 집단간의 동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Levine 검정의 결과는 [표-27]과 같다.

사업가에 대한 이슈인 Q-02, Q-08, Q-29에 관해서는 조사집단간에는 동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 간주되고 있으나 나머지 문항인 Q-03, Q-06, Q-22, Q-25에 관해서는 동질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각 집단간의 동질적인 반응이 아닌 문항

〔표-27〕 「사업가관」에 대한 Levine-검정

문항	동질집단	F값(p-val)
Q-02	(C B D A)	2.2627 (.0802)
Q-03	(A B D) (B D C)	2.8737 (.0357)*
Q-06	(D) (A C B)	4.1910 (.0060)**
Q-08	(A B D C)	.3325 (.8018)
Q-22	(D A B) (B C)	2.2440 (.0822)
Q-25	(A B D) (B D C)	1.9745 (.1167)
Q-29	(C B D A)	1.5859 (.1917)

〔표-28〕 동질 집단에 속하지 않는 문항의 수

	대학생(A)	노무직(B)	사무직(C)
노무직(B)	0	-	-
사무직(C)	3	0	-
기 타(D)	1	0	2

의 수를 정리하면 [표-28]과 같다. 이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반응은 노무직에 보다 근접하고 사무직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직과 사무직 간에는 동질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윤리의 실천」의 비교

「윤리의 실천」에 관한 6개의 문항에서는 2개의 문항(Q-13, Q-16)이 동질적인 것으로 검정되었으나 나머지 4개의 문항은 모든 집단이 동질적

〔표-29〕 「사업가관」에 대한 Levine-검정

문항	동질집단	F값(p-val)
Q-13	(D A B C)	
Q-14	(C A D) (A D B)	3.2718 (.0209)*
Q-15	(C A B) (A B D)	1.4768 (.2199)
Q-16	(A C D B)	1.7143 (.1630)
Q-21	(A D C) (C B)	7.5831 (.0001)**
Q-27	(B C A) (A D)	4.3433 (.0049)**

[표-30] 동질 집단에 속하지 않는 문항의 수

	대학생(A)	노무직(B)	사무직(C)
노무직(B)	1	-	-
사무직(C)	0	1	-
기 타(D)	2	2	2

[표-31] 전체 문항 중 동질 집단에 속하지 않는 문항의 수

	대학생(A)	노무직(B)	사무직(C)
노무직(B)	3	-	-
사무직(C)	6	3	-
기 타(D)	5	6	12

이 아닌 것으로 검정되었다.

[표-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윤리의 실천」이라는 측면은 노무직과 기타 집단과 약간의 차이(6문항 중 1문항)를 보이고 있으나 사무직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윤리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대단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개의 기업윤리의 논쟁점에 대하여 대학생은 노무직과 3개(10%), 사무직과 6개(20%), 기타집단과 5개(16.7%)의 문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1] 참조). 이것은 대학생의 윤리적 태도가 사무직보다는 노무직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무직은 사무직과 3개의 문항에서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노

무직은 학생집단과 사무직 집단에 대해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

3.2.4 경영계 및 비경영계 집단의 비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생 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기업윤리에 대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학생 집단 중 경영계 학생과 비경영계학생과는 「윤리관」가 동질적인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앞에서와 같이 집단을 경영계 학생(A), 비경영계학생, 노무직, 사무직 및 기타로 구분하여 Levine-검정을 행하고 이에서 30개의 문항 각각에 대해 집단간에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문항의 수를 정리하면 [표-32]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경영계 학생과 비경영계학생은 30문항의 기업윤리의 논쟁점에 대하여 3개 문항에서 다르게 응답하고 있는 바(10%) 이것은 경영계 학생 집단이 노무직(8개 문항), 사무직(12개 문항) 및 기타집단(7개 문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경영계학생은 다른 집단에 대해 경영계 학생들이 보이는 차이보다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32] 전체 문항 중 동질 집단에 속하지 않는 문항의 수

	경영계	비경영계	노무직	사무직
비경영계	3	-	-	-
노무직	8	5	-	-
사무직	12	8	3	-
기 타	7	3	8	12

I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지닌 기업윤리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윤리적 태도는 앞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기업윤리에 관한 태도는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과 같은 나라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차이는 물론 문화적인 차이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집단과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유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과 호주의 대학생들은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였으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대학생들과 차이를 보이면서도 미국이나 호주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경영계 대학생은 비경영계 대학생과 윤리태도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 주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경영계 대학생은 비경영계 대학생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영계 대학생들이 비경영계 대학생보다 더 큰 특색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지만 노무직보다는 사무직과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에서 노동자를 지지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윤리에 관한 30항목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대학생 및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의 비교는 조사 시점에 시

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시간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문화적인 차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연구는 보다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안동규, 주우진, 한정화, "한국경영자의 기업윤리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1995년도 추계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문집, 213-228, 1995.
- Ajzen, Icek. & Martin Fishbein, "Attitudinal and Normative Variables as Predictors of Specific Behavior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41-57, 1973.
- Allmon, E. Dean, Henry C.K.Chen, Thomas K. Pritchell, Pi Forrest, "A Multicultural Examination of Business Ethics Perceptions", *J. of Business Ethics*, 16, 183-188, 1997.
- Arlow, Peter, "Personal Characteristics in College Students' Evaluations of Business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 of Business Ethics*, 10, 63-69, 1991.
- Borkowski, Susan C. & Yusuf J. Ugras, "The Ethical Attitudes of Students as a Function of Age, Sex and Experience", *J. of Business Ethics*, 11, 961-979, 1992.
- Grunbaum, Leni, "Attitudes of Future Managers Toward Business Ethics: A Comparison of Finnish and American Business Students", *J. of Business Ethics*, 16, 451-463, 1997.
- Hunt, Shelby D. & Scott Vitell, "A General Theory of Marketing Ethics", *J. of Macromarketing*, 6, 5-16, 1986.
- Lysonski, Steven & William Gaidis,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Ethics of Business

- Students", *J. of Business Ethics*, 10, 141-150, 1991.
- Neumann, Y & A. Reichel, "The development of attitudes toward business ethics questionnaire (ATBEQ): Concepts, dimensions, and relations to work values", Working Paper, Dep.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Ben Gurion University of Negev, Israel, 1987.
- Preble, John. F. & Arie Reichel, "Attitudes Towards Business Ethics of Future Managers in the US and Israel", *J. of Business Ethics*, 7, 941-949, 1988.
- Small, Michael W. "Attitudes Towards Business Ethics Held by Western Australian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J. of Business Ethics*, 11, 745-752, 1992.
- Smith, Patricia L., Ellwood F. Ockley, III, "Gender-Related Differences in Ethical and Social Values of Business Students: Implications for Management". *J. of Business Ethics*, 16, 37-45, 1997.
- Tse, Allan C.B., & Allan K.M. Au, "Are New Zealand Business Students More Ethical Than Non-Business Students?", *J. of Business Ethics*, 16, 445-450, 1997.
- Wines, William A. & Nancy K. Napler, "Toward an Understanding of Cross-Cultural Ethics: A Tentative Model." *J. of Business Ethics*, 11, 831-841, 1992.

Attitudes Toward Business Ethics Held by Korean Students

Choong Yung 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toward business ethics held by Korean students.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toward 30 issues concerning business ethics and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ttitude toward business ethics, we compared Korean students with foreign students and then with white, blue-collar and other groups in Korea.

The results derived from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

- 1) The Korean students hav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 business ethics from those of students in other countries like U.S.A., Australia, and Israel. The differences of Korean students can be unique characteristics because Korean students also have the differences from other groups such as white, blue collar and others group in Korea.
- 2) The business students have some differences from the non-business students toward ethical attitudes
- 3) Korean students have more differences from white-collar groups than blue-collar groups.

*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